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준중형 SUV의 새 강자... '뉴 푸조 3008 GT' 시승기

디자인·성능·가격 '그웨잇'...볼수록 빠져드는 '뉴 푸조 3008 GT'

프랑스 감성 물씬 풍기는 실내외 디자인
매직플랫 기능으로 공간 최대 1670리터
해치백에 가까운 민첩한 주행도 매력적



준중형 SUV 시장에서 푸조 3008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장을 지배하던 폭스바겐 티구안이 판매 중단으로 주춤한 사이, 푸조 3008은 무난하게 시장에 안착했다. 기존에 조금 어중간한 MPV(다목적차, Multi Purpose Vehicle)에서 요즘 시장의 대세인 SUV로 스타일을 완전히 바꾼 것이 주효했다. 디자인과 가격, 성능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진 덕분에 2017년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3008을 베이스로 성능과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한 3008 GT 모델을 시승했다.

●완전히 새로운 실내 스타일 'i-Cockpit'

푸조 3008 GT는 프랑스 감성이 물씬 풍기는 실내외 디자인이 큰 매력이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선호할 수 있는 독특한 감각의 스타일링으로 무장했다.

특히 실내 인테리어는 프랑스 감성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준다. 새로운 디자인 컨셉트인 아이콕핏(i-Cockpit)을 적용했는데, 스티어링 휠은 양중맞을 정도로 콤팩트한 사이드저서 손에 착 감긴다.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지만 편 드라이빙을 할 때도 적합하다. 시트와 도어 트림에는 알칸테라 소재를 사용해 고급감을 더했다. 세 가지 향을 선택할 수 있는 디퓨저도 장착되어 있다.

8인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그 아래에 있는 토글 스위치는 푸조만의 독창적인 실내 디자인을 완성시켜 주는 요소다. 크롬으로 만들어진 이 스위치는 항공기 조종석 설계에서 영감을 얻었다. 라디오, 전화, 공조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스위치 하나로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하다. SUV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뒷좌석 시



푸조 3008 GT는 힘과 효율성을 고루 갖춘 BlueHDi 2.0 엔진을 장착했으며, 프리미엄한 감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수입 준중형 SUV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트에는 '매직 플랫'(Magic Flat) 기능을 넣었다. 스위치를 잡아당기면 작동되는데, 완전히 접으면 591리터에서 최대 1670리터까지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본격적인 주행을 하기 전 디자인을 본 것만으로도 차를 계약하고 싶어질 정도로 매력적이다.

●2.0 엔진으로 더 강력해진 심장, 고속도로 연비 14.3km/l

푸조 3008 GT에는 BlueHDi 2.0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다. 최대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40.82 kg.m다. 1660kg의 공차중량을 지닌 3008 GT에 충분한 파워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데도 손색이 없다.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도 잘 억제되어 전체적으로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SUV지만 거동이 느리지 않으며, 해치백 스타일에 가까운 민첩한 주행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New푸조 3008 GT 주요 제원

전장(mm)	4450
전폭(mm)	1840
전고(mm)	1625
휠베이스(mm)	2675
승차정원(명)	5
배기량(cc)	1997
최고출력(ps/rpm)	180 / 3780
최대토크(kg.m/rpm)	40.82 / 2000
복합연비(km/L)	복합: 13.0(도시: 12.0 / 고속도로: 14.3)
형식	6단 자동변속기
구동방식	전륜구동
가격	4990만 원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아차 '스팅어' 2018 올해의 차·디자인상 2관왕 영예

기아자동차의 스팅어가 '2018 올해의 차'를 수상했다. 스팅어는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회장 하영선)가 주관해 1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올해의 차와 함께 디자인 부문도 수상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협회 회원과 올해의 차로 선정된 관계사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스팅어로 2018 올해의 차를 수상한 권혁호 기

아차 국내영업본부장 부사장은 "자동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올해의 차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상 덕분에 올해 스팅어 판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SUV는 볼보자동차 XC60이 수상했다. 볼보는 지난해 XC90에 이어 올해는 XC60으로 SUV 부문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이윤보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영광이다"며 "내년에도 올해 출시되는 XC40으로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친환경 부문에서는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 EV가 수상했다. 황지나 한국지엠 홍보 부사장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볼트 EV가 친환경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올해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더 많은 고객들이 볼트 EV와 만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올해의 퍼포먼스는 아우디 R8이 수상했다. 세드릭 주호넬 아우디 코리아 사장은 "R8의 퍼포먼스가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아우디 코리아가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차'는 매년 출시된 신차 가운데 10개 모델을 최종 후보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실차 테스트와 세부 항목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원성열 기자

SUV 부문 '볼보 XC60'·친환경 부문 '쉐보레 볼트 EV'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홀에서 열린 '2018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윤보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 권혁호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 부사장, 황지나 한국지엠 홍보 부사장, 세드릭 주호넬 아우디 코리아 사장(왼쪽부터).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패딩바지1벌+누빔점퍼1벌 49,800원 '디케노' 70% 겨울세일!

품질! 가격! 명품 '디케노' 를 선택하세요!

킷털같이 가볍고, 난로처럼 따뜻한~2018년형 디케노 겨울 패딩바지

눈위에 굴러도 끄떡없는 겨울 패딩바지 작년부터 유행하는 스타일로 2018년형 새디자인으로 출시 되었다. 외부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인기절정!

한기(寒氣) 완벽차단! 야외근무자에 최적!

실용성 / 활용성 / 스타일

가볍고 따뜻한 충전제를 넣은 패딩바지 편안한 착용감으로 활동성이 좋습니다. 일상복, 작업복, 등산복으로 적극 추천!

1장 29,800원
1+1 2장 49,800원

▶색 상 : 네이비 블랙
▶사이즈 : 30, 32, 34, 36, 38, 40
디자인이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이비 블랙

디자인과 실용성, 겨울용 '디케노' 키팅자켓

실내외에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누빔자켓으로 야외활동이나 등산, 낚시 등 레저활동시 방한 내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순간 열패딩자켓
꼼꼼한 누빔원단
다이아몬드 키팅

1+1
2장 39,800원
각 1장 구매시 24,800원

▶색 상 : 네이비 그레이
▶사이즈 : 95, 100, 105, 110

네이비 카키

디케노 내복

패션과 따뜻함을 동시에

초경량으로 신축성이 뛰어나며 기모원단 사용으로 강추위도 막아준다. 터치가 부드러우며 유연성이 뛰어나고 가벼워서 활동시 자유롭고 편안하다.

100% 국내 기모 원단입니다

1+1
2벌 39,800원

▶색 상 : 블랙
▶사이즈 : 95~100 (L)
105~110 (XL)

상 / 하

인터넷주문 : 네이버에서 **디케노** 를 검색하세요 구입문의 **1544-5296** 입금계좌 <농협> 351-0706-9900-03 예금주 삼봉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